

조사연구자료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지역 청년층 고용의 질 평가 및 시사점

2025. 12



한국은행 충북본부

작성자: 기획조사팀 과장 백승수, 인턴 김세은
조언자: 기획조사팀 팀장 김광민

- 차 례 -

<요 약>

I. 검토배경	1
II.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 구조	2
III.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 평가	5
IV. 충북지역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인식	9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1

<참고문헌>

<요 약>

1. 검토배경

- **충북의 청년층 고용상황은 고용률 수준이 높아 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4~3/4분기 20대와 30~34세 고용률은 각각 63.6%, 86.0%로 17개 시·도 중 3위, 1위 수준이다.
- 그러나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인 순유출을 보인다. 보고는 충북 청년층의 취업 구조와 고용의 질, 삶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 구조

- (산업별) 전국보다 제조업 취업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 취업 비중은 낮다.
- (직업별) 전국에 비해 제조업 기반 직업의 취업 비중은 높지만 전문직 취업 비중은 낮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 (기업규모별) 소기업(99인 이하) 취업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중·대기업(1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다.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국 대비로는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낮다.

3.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 평가

- (고용안정) 전국보다 상용 근로자와 정규직 비중이 높은 반면 단기계약 근로자 비중이 낮다.
 - (임금보상) 실질임금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낮다.
 -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자(주52시간 이상) 비중이 전국보다 높다.
 - (고용평등) 성별 고용률 차이가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 ⇒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근로시간, 고용평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

4. 충북지역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인식

- (지역 이탈 사유) 충북 청년층이 이탈을 희망하는 이유는 일자리(38.3%), 문화생활(3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생활 비중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원 정책 수요) 충북지역 청년층은 주거(37.0%), 일자리(30.4%), 복지·문화(23.2%)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인식하였다. 복지·문화 비중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 비중, 장시간 근로자 비중, 고용평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충북지역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나,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 서비스업 기반 확충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ICT 서비스업, 지식집약 전문서비스업(KIBS),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제조업 외 영역에서도 청년의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 유치를 통해 전문직 일자리를 마련한다. R&D 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력들이 전문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장시간 근로 및 성별 고용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인력운용 방식 컨설팅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청년층의 경력 진입 및 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 청년층 정주 의향을 높이기 위해 문화·여가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생활권 기반의 소규모 문화거점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생활·문화·사회관계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I. 검토배경

1. **충북의 청년층 고용상황은 고용률 수준이 높아 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4~3/4분기 중 충북의 20대 고용률은 63.6%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았으며, 30~34세 고용률은 86.0%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 **그러나 충북의 청년층 인구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중 충북의 전체 인구는 3.2천명 순유입되었으나 20~34세 인구는 1.6천명 순유출되었다.

▶ 충북 20~34세 순이동 인구(천명) : 22년 -0.6(+5.2) → 23년 -0.3(+3.9) → 24년 -1.6(+3.2)
 주:()내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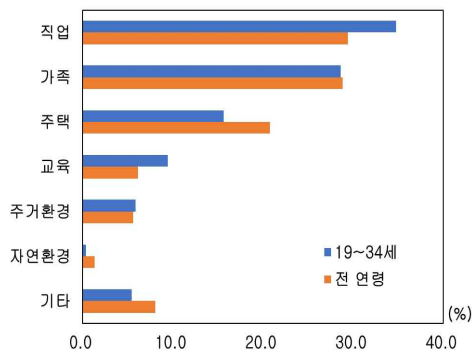
2.1. **청년층의 시·도간 주요 이동 사유(전국 기준)는 '직업'이다.** 2024년 중 19~34세 연령층의 이동 원인은 직업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28.6%), 주택(15.6%), 교육(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직업 비중은 전 연령대(29.4%)보다 5.3%p 높게 나타났다.

3. **본고에서는 충북 청년층*의 취업 구조를 살펴보고 고용의 질을 평가한 후 삶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년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유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청년층은 「청년기본법」의 19~34세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청년층 주요 이동 사유는 '직업'

청년층 이동 사유별 비중
(전국<2024년>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충북 청년층의 양적 고용상황은 우수

시·도별 청년층 고용률
(2025년 1/4~3/4분기 중)

	(% 순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62.9 (13)	61.5 (16)	58.3 (17)	58.0 (17)	63.5 (10)	60.8 (14)	62.1 (12)	60.1 (15)	64.8 (6)
20~29세	60.4 (7)	61.2 (7)	57.3 (12)	53.2 (16)	60.8 (9)	49.8 (17)	58.3 (11)	61.5 (6)	54.1 (13)
30~34세	80.9 (3)	83.2 (3)	81.1 (7)	72.0 (17)	84.7 (2)	72.7 (16)	79.5 (11)	78.7 (12)	81.4 (6)
충북 지역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4.0 (8)	64.5 (7)	67.1 (2)	65.5 (4)	63.5 (9)	65.8 (3)	64.8 (5)	63.1 (11)	69.6 (1)
20~29세	64.1 (1)	61.1 (8)	63.6 (3)	63.7 (2)	53.3 (15)	61.6 (5)	59.2 (10)	54.1 (14)	61.9 (4)
30~34세	81.1 (7)	81.7 (5)	86.0 (1)	79.9 (9)	82.6 (4)	78.4 (14)	77.7 (15)	78.5 (13)	79.7 (10)

주: 1)()내는 17개 시·도 중 순위
 자료 :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 조사)

Ⅱ.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 구조

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 구조를 산업별, 직업별, 기업 규모별 등의 측면에서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지역 내 산업구조¹⁾가 반영되어 제조업 취업 비중이 높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등 제조 기반의 직업을 가진 청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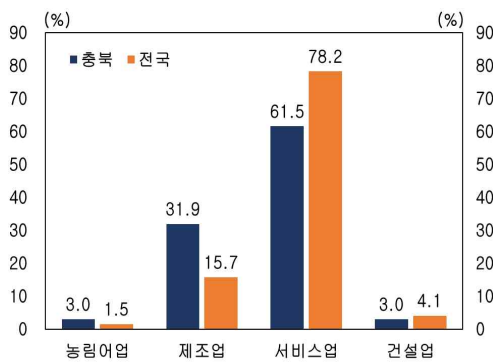
(산업별)

5. 충북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 구조를 보면 전국보다 제조업 취업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 취업 비중은 낮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 61.5%, 제조업 31.9%, 농림어업 3.0% 등의 순이다. 제조업 비중은 전국보다 16.2%p 높지만 서비스업은 16.7%p 낮다.

5.1. 시·도별로 보면 충북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 비중은 울산(33.5%) 다음으로 높다. 반면 서비스업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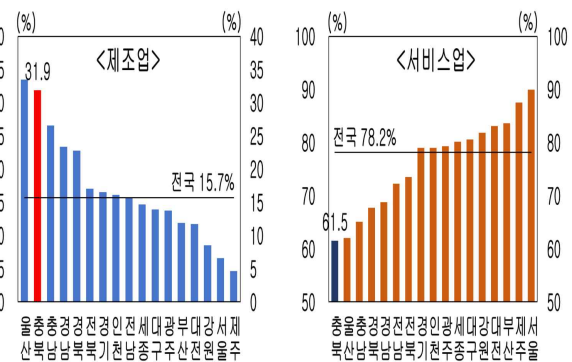
충북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 구조는 전국보다 제조업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은 낮음

충북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시·도별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1) 2023년 지역내총생산 기준, 충북지역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43.1%, 서비스업 41.3%, 건설업 6.0% 등의 순이다. 제조업, 건설업은 전국(각각 25.6%, 5.4%)보다 높지만 서비스업은 전국(59.2%)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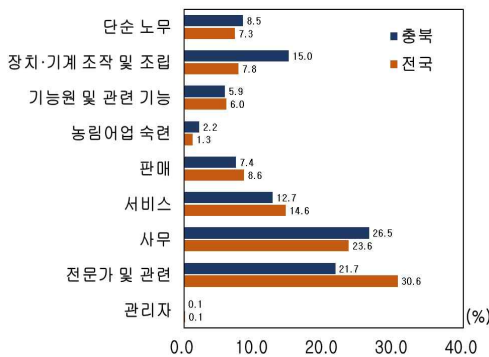
(직업별)

6.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 구조는 전국보다 제조업 기반 직업의 취업 비중은 높지만 전문직 취업 비중은 낮다.**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사무 종사자 26.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0% 등의 순이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중은 전국보다 7.3%p 높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은 9.0%p 낮다.

6.1. 시·도별로 보면 충북 청년층의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중은 울산(20.6%), 충남(15.6%), 경북(15.2%)에 이어 4번째로 높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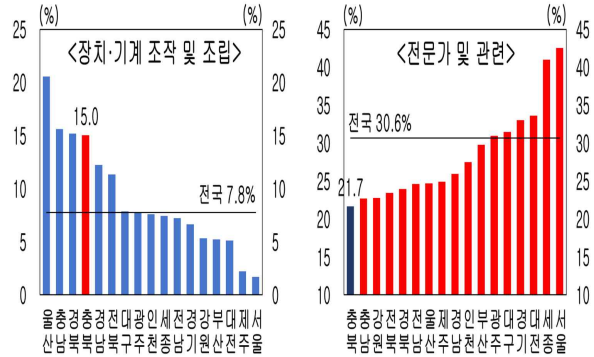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 구조는 전국보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제조업 기반 직업의 비중은 높지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 전문직 비중은 낮음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시·도별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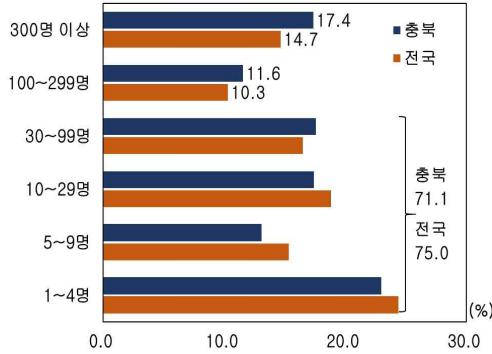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

7. **충북지역 청년층의 기업 규모별 취업 구조를 보면 소기업 취업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전국과 비교해서는 규모(고용인원 기준)가 큰 기업에 대한 취업 비중이 높다.**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기업 규모별 비중은 소기업(99인 이하) 71.1%, 대기업(300인 이상) 17.4%, 중기업(100~299인) 11.6% 순이다. 대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전국보다 각각 2.7%p, 1.3%p 높지만 소기업 비중은 3.9%p 낮다.

7.1. 충북 청년층의 대기업 취업 비중은 17개 시·도 중 4번째, 중기업 취업 비중은 3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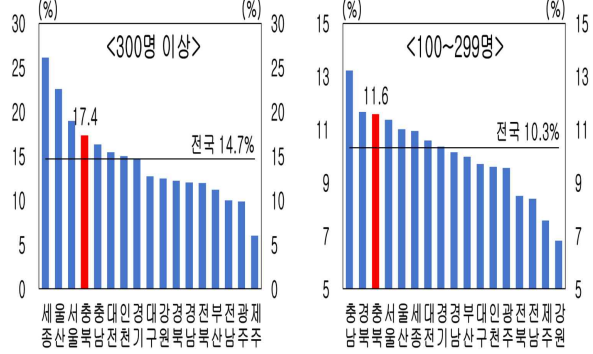
충북지역 청년층의 기업 규모별 취업 구조는 300인 이상, 100~299명 기업에 대한 취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충북지역 청년층의 기업 규모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시·도별 청년층의 기업 규모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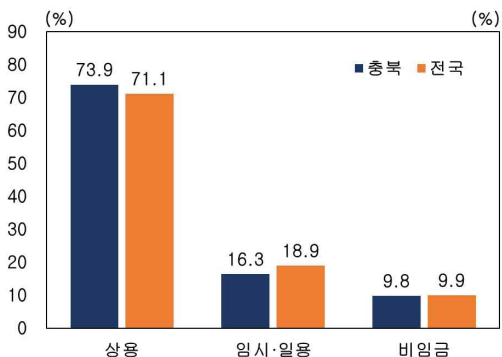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8. 충북지역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 구조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국 대비로는 상용직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낮다.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은 상용직 73.9%, 임시·일용직 16.3%, 비임금 근로자 9.8% 순이다.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전국보다 2.8%p 높다.

8.1. 충북 청년층의 상용직 비중은 17개 시·도 중 울산(74.6%), 세종(74.6%)에 이어 3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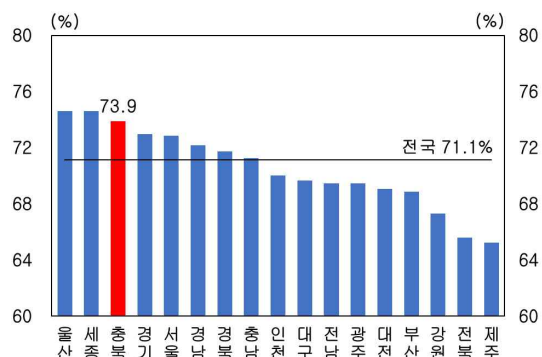
충북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 구조는 전국보다 상용직 비중은 높지만 임시·일용직은 낮음

충북지역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시·도별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 비중
(2024년 하반기)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

Ⅲ.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 평가

9. Ⅲ장에서는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고용안정, 임금보상, 근로시간, 고용평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²⁾.

(고용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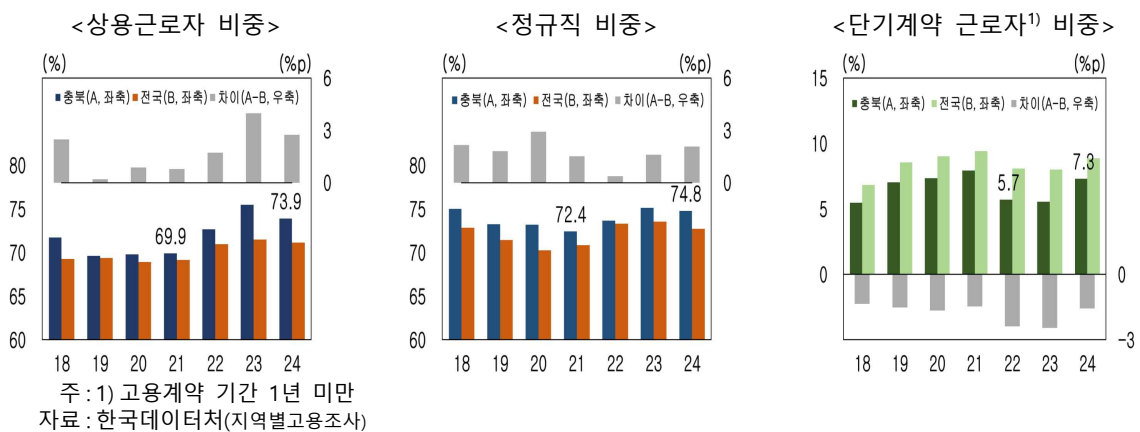
10. 고용안정 측면에서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상용근로자와 정규직³⁾ 비중이 전국을 상회하면서 점차 상승하였으며 단기계약 근로자(고용계약 1년 미만) 비중은 전국을 하회하였다.

10.1. 충북지역 청년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021년 69.9%에서 2024년 73.9%로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전국(21년 69.1% → 24년 71.1%)과의 차이는 0.8%p에서 2.8%p로 확대되었다. 정규직 비중도 충북은 72.4%에서 74.8%로 높아졌으며 전국(70.9% → 72.7%)과의 차이는 1.5%p에서 2.1%p로 확대되었다.

10.2. 단기계약 근로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1~2%p 정도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다만 충북 청년층의 단기계약 근로자 비중 상승폭(22년 5.7% → 24년 7.3%, +1.6%p)이 전국(8.1% → 8.9%, +0.8%p)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개선되는 모습

충북 청년층의 고용안정 지표 추이



2) ILO, EU 등의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고용의 질 평가 지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3) 정규직은 취업자 중 비정규직^①(상용근로자 중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임시·일용근로자)을 제외한 근로자로 파악한다.

(임금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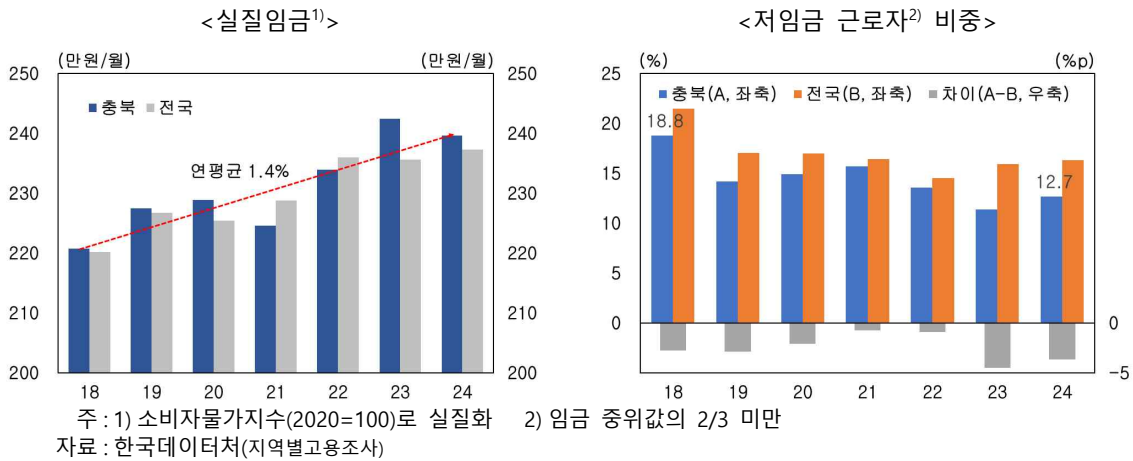
11. 임금보상 측면에서도 충청지역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실질임금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저임금 근로자⁴⁾ 비중이 축소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다.

11.1. 2018~2024년 중 충청지역 청년층의 실질임금(월평균) 상승률은 연평균 1.4%로 전국(+1.3%)과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실질임금은 2023년에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환된 후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1.2. 충북 청년층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8.8%에서 2024년 12.7%로 6.1%p 축소되었으며 전국(18년 21.5% → 24년 16.3%, -5.2%p)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임금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축소되면서 개선되는 모습

충북 청년층의 임금보상 지표 추이



(근로시간)

12. 근로시간 측면에서 충청지역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자(주 52시간 이상) 비중이 전국보다 높지만 시간제 근로자(1~35시간) 비중은 전국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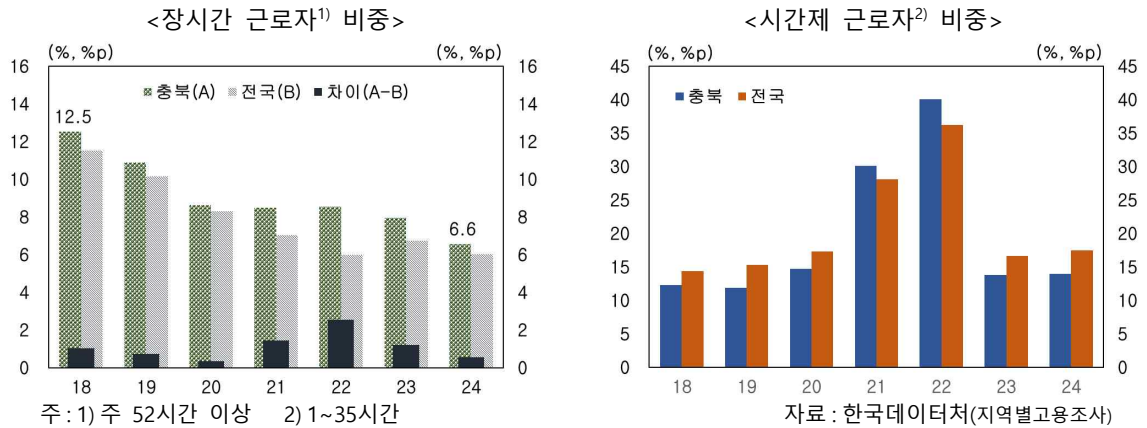
12.1. 충북 청년층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2.5%에서 2024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전국(18년 11.5% → 24년 6.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4)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12.2.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⁵⁾은 2018년 12.4%에서 2024년 14.0%로 1.6%p 상승하였으나 전국(18년 14.4% → 24년 17.5%)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낮음

충북 청년층의 근로시간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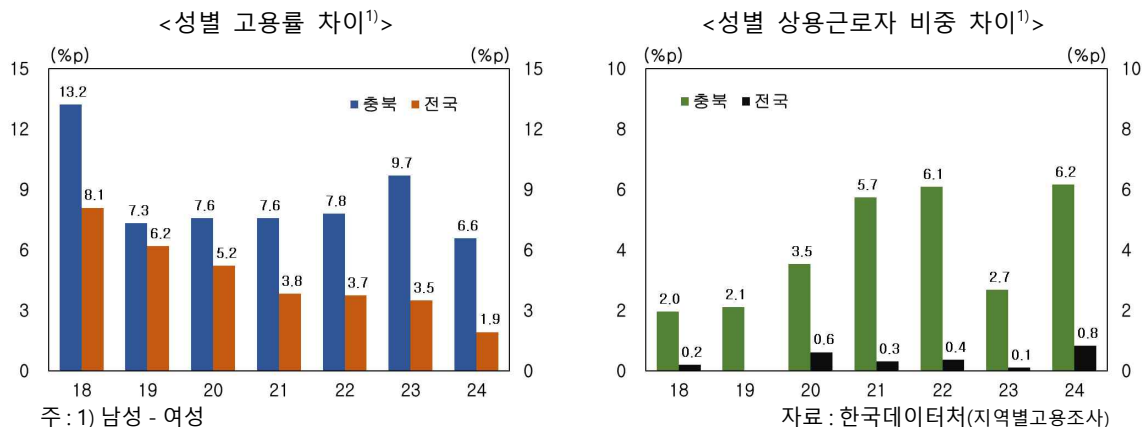


(고용평등)

13. 충북지역 청년층은 성별 고용평등 상황이 전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차이(남성-여성)가 2018년 +13.2%p에서 2024년 +6.6%p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국(18년 +8.1%p → 24년 +1.9%p)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성별 상용근로자 비중 차이(+2.0%p → +6.2%p)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중 차이를 볼 때 성별 고용평등 상황이 전국보다 미흡

충북 청년층의 고용평등 지표 추이



5) 2021~2022년 중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 인력 활용이 확대되고 비대면 학업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학업과 근로 병행이 용이해진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추정된다.

참고 고용의 질 평가지표

1. ILO, EU,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고용안정, 고용평등, 노동시간 등 기본적 요소 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 다양성과 비차별, 직장 내 관계 및 직무 동기, 업무강도 등 정성적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
2. 본고에서는 고용안정, 임금보상, 근로시간, 고용평등 등 4개 지표를 사용하여 고용의 질을 살펴본다. 선행연구의 다양한 평가지표 중 공통된 지표와 데이터(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하였다.

고용의 질 평가지표

지표	부문
ILO, '괜찮은 일자리 지표' (Decent work indic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성 -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적절한 노동시간 - 고용기회 - 철폐되어야 할 노동 - 일과 가정의 조화
EU, '일자리의 질' (Quality in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평등 - 안전한 작업환경 - 사회보장 - 사회적 대화 - 경제사회적 맥락
UNECE, '고용의 질' (Quality of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재적 일자리의 질 - 평생학습과 경력개발 - 남녀평등 - 작업장내 보건 및 안전 - 유연성과 안정성 - 노동시장의 접근성 - 작업조직 및 일과 가정의 조화 -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 다양성과 비차별 - 전반적 경제성과와 생산성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의 질 거시 기업 개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안전과 윤리성(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고용 형평성) - 노동시간(노동시장, 정규근로)과 일과 가정의 조화 - 임금과 복지혜택 - 고용안정성과 사회적 보호 - 사회적 대화 및 직장 관계 - 기술개발과 평생교육 - 직장 내 관계 및 직무 동기
ILO, '한국의 고용의 질' (Job qu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or dec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 - 고용안정 - 능력개발 - 임금보상 - 근로조건 - 고용평등 - 일과 가정의 양립 - 참여 및 발언권 - 사회보장 - 임금 - 전망(고용안정, 경력발전) - 업무숙련도와 자율성 - 사회적 환경 - 물리적 업무환경 - 근무시간의 질 - 업무강도

IV. 충북지역 청년층의 삶에 대한 인식

14. IV장에서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결과를 이용하여 충북지역 청년층의 지역 이탈 사유 및 지원정책 수요 등을 살펴본다.

(지역 이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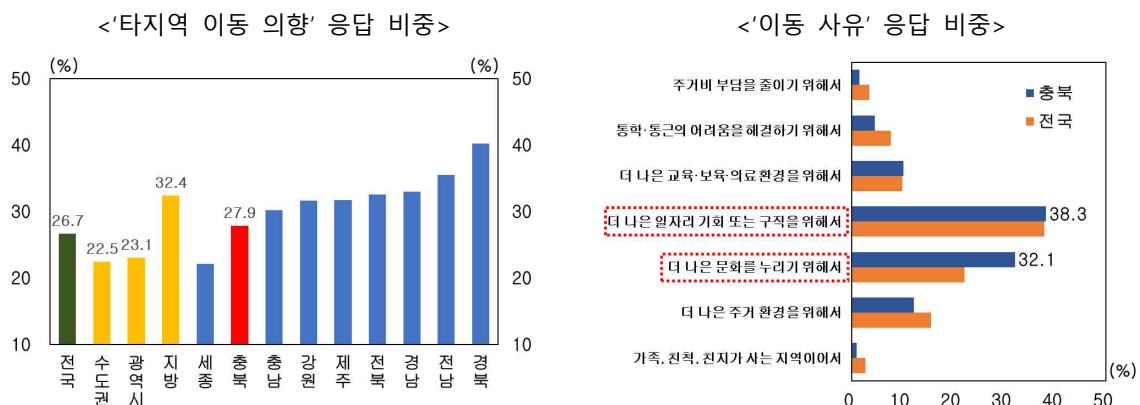
15. 우선 청년층의 타지역 이동 의향을 살펴보면, **충북 청년층은 지역 이탈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충북지역 청년층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길 희망하는 비중은 27.9%로 지방 평균(32.4%)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지방 중 세종(22.2%) 다음으로 낮았다. 다만 수도권(22.5%)과 광역시(23.1%)보다는 높았다.

16. **이동을 희망하는 주요 원인은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문화생활'로 나타났다.** 이동 의향이 있는 충북지역 청년층의 주요 이탈 사유는 일자리(38.3%), 문화생활(32.1%)이 각각 30%를 넘었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12.2%), 교육·보육·의료 환경(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1. **특히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자리 비중은 전국(37.9%)과 비슷하였으나 문화생활은 전국(22.2%)보다 9.9%p나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이 이동을 희망하는 주요 원인은 일자리, 문화생활, 주거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북지역 청년층의 타지역 이동 의향 및 원인



(지원정책 수요)

17. **충북지역 청년층은 주거(37.0%, 비중), 일자리(30.4%), 복지·문화(23.2%)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인식하였다.** 동 순위는 전국 평균(각각 42.4%, 35.7%, 14.9%)과도 일치한다.

17.1. **특이점으로는 충북 청년층은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문화 비중이 23.2%로 전국(14.9%)에 비해 8.3%p 높았다.

충북지역 청년층은 복지·문화 분야를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인식

충북지역 청년층의 지원정책 수요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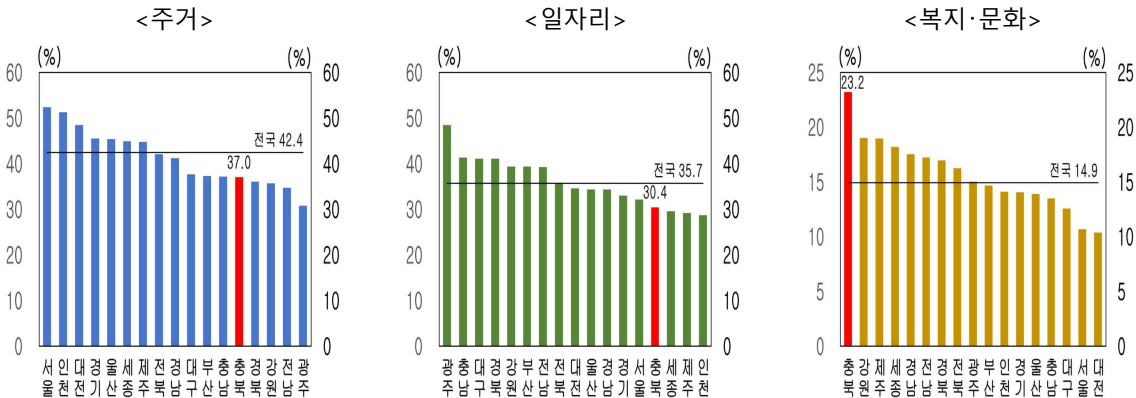
	주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충북(A)	37.0	30.4	23.2	8.3	1.1
전국(B)	42.4	35.7	14.9	5.8	1.1
차이(A-B)	-5.4	-5.3	+8.3	+2.4	0.0

자료 : 국무조정실(청년의 삶 실태조사)

17.1.1. 이는 17개 시·도별 응답 비중을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 비중은 17개 시·도 중 각각 13위, 14위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복지·문화 지원 비중은 1위를 보여 정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주거, 일자리 비중은 하위권이지만 복지·문화 비중은 가장 높음

시·도별/분야별 청년층의 지원정책 수요 응답 비중



자료 : 국무조정실(청년의 삶 실태조사)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18.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화학제품, 식료품 등 전통 제조업 및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내 산업 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19. **다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으며, 고용평등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 **아울러 충북지역 청년층은 지역을 이탈하고자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문화생활' 순으로 꼽았다. 필요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는 주거, 일자리, 복지·문화 순으로 나타났으나, 복지·문화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년층 고용 여건은 양적으로 우수하며 질적으로도 양호한 편

충북지역 청년층 고용에 대한 평가

양적 : 우수	질적 : 양호
① 고용률 상위 ○ 17개 시·도 중 30~4세 1위, 20대 3위	① 고용안정 : 전국보다 양호, 점차 개선 ○ 상용직, 정규직 비중 높지만 단기계약 근로자 비중은 낮음
② 취업 구조 ① 산업별 : 제조업 비중 전국보다 높음 ② 직업별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등 제조업 기반 직업 종사자 비중 전국보다 높음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음 ③ 기업 규모별 :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음 ④ 종사상 지위별 : 상용직 비중 높음	② 임금보상 : 전국보다 양호, 점차 개선 ○ 실질임금 수준 전국 상위, 상승 흐름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전국 하위, 하락 흐름 ③ 근로시간 : 개선 필요 ○ 장시간 근로자 비중 전국보다 높음 ○ 시간제 근로자 비중 전국보다 낮음
	④ 고용평등(성별) : 전국보다 미흡 ○ 성별 고용률 격차 전국을 크게 상회

(시사점)

21. 충북은 청년층의 고용 여건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년층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청년층이 정착하길 원하는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① 서비스업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22. **서비스업 기반 확충⁶⁾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이 더뎠다. 청년층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ICT 서비스업, 지식집약 전문서비스업(KIBS),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제조업 외 영역에서도 청년의 직업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유치를 통한 전문직 일자리 강화

23. **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 유치를 통해 전문직 일자리를 마련한다.** 인적자본 축적 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수도권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크다 (김민석·강민규(2023)). 이는 제조시설이 지역에 있더라도 R&D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들의 R&D 시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력들이 전문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장시간 근로 및 성별 고용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4.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인력운용 방식 컨설팅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상용직 확대 등 안정적 고용 기반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년층의 장시간 근로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관리체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5. **여성 청년층의 취업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남성 고용 비중이 높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성별 고용률 격차를 확대하는 만큼 여성 청년층의

6)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 기반 확충은 청년고용의 고용률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 진입 및 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 25.1.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맞춤형 직무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유연근무⁷⁾ 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문화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4 청년층 문화·여가 인프라 강화 및 정책 플랫폼 개선

26. **청년층 정주 의향을 높이기 위해 문화·여가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문화 생활의 상대적 부족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복지·문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기반의 소규모 문화거점 확대⁸⁾, 지역 축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26.1.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정책 플랫폼(충청북도)을 생활·문화·사회관계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고용노동부의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4.12월)」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21.6%)'을 꼽았다.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9.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 휴직 사용(16.3%)'이 그 뒤를 잇는다.

8)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외 명파마을 아트케이션(art-cation) 프로그램이 있다. 모집된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마을에 머물며 지역을 주제로 창작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아트케이션 페스타' 등의 행사에서 선보이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참고문헌

김광민, 심연정(2021), "충북의 양호한 고용상황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김민석, 강민규(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36집 제2호.

이재진(2024), "최근 충청지역 고용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최지욱(2021), "포항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주영, 오지윤(2020), "경기지역 청년고용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경기본부.

박범기, 안중섭, 김민수(2024),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부진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채민석, 장수정(2025),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BOK이슈노트 제2025-1호.

한진수, 오삼일(2025),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제2025-30호.

민보경(2024),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고용노동부(2024),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충청북도(2025), "2025년 충청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